

『화엄문의요결문답』 고사본의 비교연구¹⁾

김성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 緒論

『華嚴文義要決問答』은 新羅의 皇龍寺 스님인 表員이 集한 華嚴敎學에 대한 概說書이다. 80華嚴을 對象으로 編輯한 冊이지만 法藏, 懔法師, 元曉, 義相, 慧遠, 慧苑 등 淨法寺 慧苑을 除外하고는 주로 60華嚴을 對象으로 華嚴敎學을 著述한 論疏를 自身의 意圖에 따라 編輯한 冊이므로 60華嚴의 經文이 오히려 80華嚴의 經文보다 많이 引用되었다.

-
- 1) 『華嚴文義要決問答』에 대한 研究는 韓國研究財團의 基礎學問土臺研究 프로젝트(팀장: 鄭在永)의 一環으로 進行되고 있으며 이 글은 이 『華嚴文義要決問答』 프로젝트팀의 共同 研究에 바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共同 研究의 成果 中 一部를 發表하는 것이지 결코 本人 個人的 힘만으로 이루어진 研究가 아님을 밝혀둔다.

불교학리뷰 (Critical Review for Buddhist Studies)

7권 (2010. 6) 183p~216p

www.kci.go.kr

이 文獻은 韓國에서는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도 記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流通의 痕迹도 찾을 수 없지만, 日本에서는 審詳의 藏書目錄, 東大寺 圓超의 『華嚴宗章疏并因明錄』, 凝然的 『法界義經』 등 주요 藏書目錄이나 華嚴敎學書에 記載 또는 引用되어 왔다.

小林芳規(2002)는 日本 訓點의 第1 段階에 該當하는 文獻으로 大東急記念文庫 所藏 『華嚴刊定記』 卷第5, 延曆寺 所藏 『華嚴要義問答』 卷上·卷下, 佐藤達次郎 舊藏 『華嚴文義要決問答』 卷第1, 景雲 年間に 書寫된 『大方廣佛華嚴經』 등을 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延曆寺本 『華嚴要義問答』과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이 이 文獻의 異本이다. 특히 後者は 新羅의 口訣 또는 日本 訓點의 初期 形態로 볼 수 있는 點吐가 記入되어 있으며(Whitman 2009), 書寫 年代가 記錄되어 있는 延曆寺本 에는 句讀點이 記錄되어 있기 때문에 漢文 讀法의 過程을 理解할 수 있는 重要한 文獻이다.

이 글의 目的은 『華嚴文義要決問答』(이후 特別한 경우가 아니면 『要決問答』으로 略稱한다)의 諸異本 특히 奈良時代 末期나 平安時代 極初期에 書寫된 古寫本을 통하여 텍스트의 異同을 살핌으로써 現代의 佛敎 研究者들이 佛典의 텍스트로 利用하는 大日本續藏經에 실려 있는 『華嚴文義要決問答』의 텍스트 上의 誤謬를 校勘하는 데 古寫本을 통한 校勘 作業이 先行되어야 함을 보이는 데 있다.

2. 書誌와 書名

2.1 異本の 種類

지금까지 밝혀진 『要決問答』의 異本은 모두 6개가 있다.

(1) 『華嚴文義要決問答』의 異本²⁾³⁾

- 가. 佐藤達次郎 舊藏本 『華嚴文義要決問答』 卷第1 (以下 佐藤本으로 略稱)
- 나. 延曆寺 所藏本 『華嚴要義問答』 卷上, 卷下 (以下 延曆寺本으로 略稱)
- 다. 東大寺 四聖藏本 『華嚴文義要決問答』 卷第1, 卷第2 (以下 四聖藏本으로 略稱)⁴⁾
- 라. 龍谷大 所藏本 『華嚴文義要決問答』 卷第1~卷第4 (以下 龍谷大本으로 略稱)

2) 書名의 提示는 韓國 書誌學界의 慣例에 따라 第1卷의 卷首題로 提示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지만 延曆寺本과 같이 慣習의 特定 書名이 使用되어 왔을 경우에는 그 書名을 그대로 使用한다.

3) 高山寺에 『要決問答』 卷第2 中의 ‘發菩提心義’가 있다는 見解도 있으나 高山寺 目錄에서는 찾지 못하였다. 만약 이 文獻이 存在한다면 『要決問答』의 異本은 모두 7개가 되는 셈이다.

4) 이 文獻을 東大寺 四聖藏本으로 부르게 된 데에는 東大寺에서 ‘四’로 始作하면서 藏書가 可能한 곳은 四聖坊밖에 없다는 東大寺圖書館 研究員 坂東俊彦先生의 見解를 參考하여 藏書印을 ‘四聖藏書’로 判讀한 것이 根據가 되었다. 그런데 2010년 1월에 이루어진 이 文獻의 調査 過程에서 華嚴文義要決問答 프로젝트의 一員인 安大賢先生은 藏書印의 두 번째 글자를 ‘聖’으로 볼 수 없다는 見解를 내놓았다. 이 藏書印에 대해서는 이 文獻을 轉寫한 東大寺 松原文庫本の 筆寫者인 山口共讓스님은 卷末의 筆寫記에서 ‘四書藏書’로 判讀하였고 그 옆에는 ‘東大寺 四書坊’이라 添記하였다. 그런데 실제 藏書印의 두 번째 글자는 ‘聖’나 ‘書’로 읽기에 無理가 따르는 것이 問題가 된다. 이 글에서는 이 文獻의 書名이 確實해질 때까지 既存의 書名인 ‘東大寺 四聖藏本’을 그대로 쓴다.

- 마. 京都大 所藏本 『華嚴經⁵⁾ 文義要決問答』 卷第1~卷第4 (以下 京都大本으로 略稱)
- 바. 東大寺 松原文庫本 『華嚴文義要決問答』 卷第1, 卷第2 (以下 松原文庫本으로 略稱)

(1가)의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은 1卷 1軸의 卷子本으로 奈良時代 末期에 書寫된 것으로 推定된다. 現存 『卍續藏經』에 收錄된 『要決問答』 4卷 中 卷第1에 該當하는 部分만 남아 있다. 이 文獻은 第2次 世界大戰 中 東京 爆擊 時인 1945年(昭和 20年)에 原本이 燒失되었지만 多幸히 燒失되기 前인 1939年(昭和 13年)에 複製本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現在는 이 複製本을 研究에 利用하고 있다.⁶⁾

佐藤本の 背紙에는 ‘諷誦文庫’가 書寫되어 있는데 이 文獻은 日本 最初의 漢字·片假名 混用文 資料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日本 語學界의 注目を 받아왔다.(築島裕 1963/1980, 中田祝夫 1969/1979) 그러나 正작 『要決問答』 自體나 거기에 記入된 點吐에 대해서는 日本 語學界의 研究가 活潑하지 않았는데 그 理由는 이 文獻이 韓國 스님의 著述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0年代에 들어서 小林芳規(2002, 2006, 2010)에 의해서 그 重要性이 言及되고 여기에 記入된 點吐와 日本 訓點 間의 關係가 論議되기 시작했다. 前述한 대로 小林芳規(2002)가 日本 初期 訓點의 代表的인 文獻으로 든 4개의 文獻 中 2개가 『華嚴文義要決問答』의 異本인 (1가)의 佐藤本과 (1나)의 延曆寺本이다. 또 小林芳規(2006: 22)에서는 佐藤本에 朱黃色(또는 黃褐色)으로 記入되어 있는 오코토点과 여러

5) 京都大本 卷首題의 ‘經’은 罽靑色으로 補充되었다.

6) 『華嚴文義要決問答』의 簡單한 解題와 傳來 過程 等の 說明 그리고 뒤에 後述할 ‘諷誦文庫’에 대한 論議는 山田孝雄(1939), 築島裕(1963/1980), 中田祝夫(1969/1979) 등을 參照할 수 있다.

<p>佐藤本の 卷首題 部分</p>	<p>佐藤本 중 點吐가 記入된 一部分</p>	<p>佐藤本の 卷尾題 部分</p>

符號들이 日本의 古訓點 資料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言及하고 이 文獻이 韓國의 點吐釋讀口訣과 關聯이 있는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

(2)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卷首題, 點吐, 卷尾題 部分

佐藤本은 全體 18張, 507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長當 行字數는 一定하지 않다. 卷首題 아래 部分에는 ‘古經堂藏’(朱文方印)이, 卷尾題 部分에도 上段에 ‘信’(朱文方印), 卷尾題 아래 部分에 ‘徹定珍藏’(朱文方印) 등이 찍혀져 있는데 이것은 모두 한때 이 文獻의 所藏者이었던 養鷗 徹定과 關係가 있다. 게다가 養鷗 徹定은 뒤에 紹介할 延曆寺本の 所藏者이기도 하다.(赤尾榮慶 2010)

(1나)의 延曆本 卷尾에 墨書로 記錄된 筆寫記에 依하면 799年(延曆 18年) 近事 行福이 書寫하였고, 朱書로 된 記錄에는 802年(延曆 21年)에 智圓이 스승의 講說을 들었다는 內容이 있다. 延曆寺本에는 藏書印이 모두 일곱 개가 있는데, 1張 下段에 있는 藏書印은 ‘古經堂藏’(朱文方印)이며, 卷上 末의 上段에 ‘信’(朱文方印)과 ‘徹定珍藏’(朱文方印)이 있다. 이들 세 개의 藏書印은 佐藤本에 있는 것과 同一하다. 卷上の 첫 번째 筆寫記에 찍혀 있는 두 개는 앞의 것들보다 크기가 약간 작은데 ‘古經堂之印’(朱文方印)과 ‘徹定之印’(白文方印)이며, 마지막 두 개는 卷上の 두 번째 筆寫記의 끝에 찍혀 있는데 그 判讀은 아직 이루어져 있다. 延曆寺本은 後代에 添連된 養鸕徹定の 筆寫記에 의하면 1866년(慶應 2年)에 睿山 永充 山家大師 墓所인 極樂淨土院에 什物로 寄贈된 것이다.⁷⁾

(3) 延曆寺 所藏本 『華嚴要義問答』의 1卷 卷首題, 卷尾題, 2卷 卷首題, 卷尾題 部分과 徹定上人の 筆寫記

이 文獻은 2卷 2軸의 卷子本이며 日本側 記錄에 依하면 卷上은 縱 27.8cm, 全長 888.5cm이고, 卷下는 縱 27.8cm, 全長 866.6cm이다. 이 文獻은 書寫 時期가 分明한 資料로써 黃褐色으로 된 句讀點, 漢文解釋 順序符號와 墨書로 된 削除符 등이 있기 때문에 漢文解讀과 關聯하여

7) 木本弘昭(1978)에 의해 作成된 ‘徹定上人年譜’에 依하면 延曆寺本은 古寫經을 收集하여 所藏하고 있던 養鸕徹定이 1861年에 跋을 쓰고 延曆山 山家大師 墓所인 極樂淨土院에 什物로서 寄附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卷上の 첫 번째 筆寫記에 依하면 1861年에 跋을 쓴 것은 맞으나 두 번째 筆寫記에 依하면 丙寅年인 1866年에 山家大師 墓所인 極樂淨土院에 什物로서 寄贈되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記錄이 더 옳은 것으로 보인다. 徹定の 筆寫記는 卷上和 卷下の 內容이 약간 다른데, 卷上에는 첫 번째 筆寫記와 두 번째 筆寫記로 나누어지지만 卷下에서는 하나의 筆寫記로 되어 있다. 卷上の 첫 번째 筆寫記를 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筆寫記를 쓴 것으로 보기는 筆體나 空間 등이 여의치 않으므로 徹定이 裝漢時에 卷上에서 두 개의 筆寫記를 쓰고, 卷下에서는 두 筆寫記의 內容을 하나로 합쳐서 記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延曆寺本 1卷 卷首題 部分</p>	<p>延曆寺本 1卷 卷尾題 部分</p>	<p>延曆寺本 2卷 卷首題 部分</p>	<p>延曆寺本 2卷 卷尾題 部分</p>

重要な 文獻으로 다루어져 왔다. (3)은 延曆寺本 卷上の 卷首題와 卷尾題, 卷下の 卷首題와 卷尾題를 提示한 것인데 그 內容을 다시 整理하면 (4)와 같다.

(4) 延曆寺 所藏本 『華嚴要義問答』의 卷首題와 卷尾題

- 가. 卷上の 卷首題: 華嚴經文義要決問答卷第一上五科入(4字小字)
(‘經文義要決’ 5字는 補寫됨)
- 나. 卷上の 卷尾題: 花嚴要義問答卷上
- 다. 卷下の 卷首題: 花嚴要義問答卷下
- 라. 卷下の 卷尾題: 花嚴要義問答卷下(‘花’의 ‘+’가 毀損되어 보이지 않음)

延曆寺本 卷下の 卷首題 部分은 原來의 藏書印이 찍혔을 만한 右側 下段이 찢겨져 나간 것을 確認할 수 있으며, (4가)에 提示한 대로 卷上 卷首題는 原來의 卷首題가 毀損되었던 것을 아마도 澈定이 裝潢하면서 補寫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延曆寺本の 書名을 從來의 日本學界에서는 ‘華嚴要義問答’으로 불리왔는데 이것은 卷尾題를 書名으로 부르는 日本 書誌學界의 慣行과 함께 原來의 卷首題 部分이 破損된 데에도 그 原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理由로 이 文獻은 一部の 日本學者들에 의해서 佐藤本과는 別個의 文獻으로 다루어져 왔다. 2009년에 이루어진 調査 過程에서 延曆寺本の 卷上和 卷下の 筆體가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으므로 이 資料에 대해서는 文獻學的인 研究가 더 進行되어야 한다. 卷上和 卷下の 筆體가 다르다는 것은 筆寫者가 다르다는 것이므로 從來 이 文獻의 筆寫者를 近事 行福으로만 생각해 온 것은 分명한 誤謬이다. 그런데 이 상하게도 이 文獻의 卷下에는 卷上和 대체로 비슷한 內容을 가진 筆寫記가 쓰여 있다.

(5) 延曆寺本 『華嚴要義問答』의 筆寫記

가. 卷上 筆寫記: (墨書)延曆十八年歲差(2字雙行)己卯年正月八日書
寫近事行福過去父母現在父母无邊法界四生衆生爲行奉

(黃褐色書) 同年十一月三日 聞/智圓

나. 卷下 筆寫記: (墨書)延曆十八年正月八日法界一切衆生又書去過
父母爲/近事行福寫現仕奉

(5가)의 墨書로 된 筆寫記와 (5나)의 墨書로 된 筆寫記는 대체로 같은 內容을 담고 있으나 後者의 記錄을 文面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것은 卷上和 卷下の 本文의 筆體도 다를뿐더러 卷上和 卷下の 筆寫記의 書體

도 다르기 때문이다. 단지 卷上和 卷下에 表示되어 있는 黃褐色 句節點은 同一한 것으로 보인다는 意見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事實과 推定을 옳은 것으로 본다면 卷上이 書寫된 直後에 卷下가 書寫되었을 可能性도 있는 것 같다.

(6) 延曆寺本 『華嚴要義問答』의 近事僧 行福의 筆寫記와 徹定上人의 筆寫記

(1다)의 東大寺 四聖藏本 『華嚴文義要決問答』 卷第1, 卷第2는 先行 研究에서 東大寺 2卷本으로 불렀던 文獻으로 2卷 1冊이다. 四針眼訂法으로 된 線裝本이며, 冊의 크기는 19*25.4cm이다. 東大寺 圖書分類番號는 ‘26函/256号/1冊’이다. 表題는 ‘華嚴經文義要決問答’이며 이 중 ‘義’字는 ‘句’字에서 校正되어 있다. 卷一의 卷首題는 ‘華嚴文義要決問答’, 卷尾題는 ‘華嚴經文義要決問答卷一’, 卷二의 卷首題는 ‘華嚴經文義要決問答卷二’, 卷尾題는 ‘華嚴經文義要決問答卷二’이다. 從來 이 文獻의 이름을 東大寺 2卷本에서 東大寺 四聖藏本으로 부른 데에는 卷一의 右側 下段에 찍힌 藏書印을 ‘四聖藏書’로 읽은 것에 起因하나 최근의 東大寺 資料 調査에서 이 藏書印의 두 번째 글자를 ‘聖’으로 읽을 수 없다는 見解가 提起되어 現在로서는 이 文獻의 正確한 書名이 正해져 있지 않은 常態이다. 이 文獻의 書名이 確定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동안 불려왔던 ‘東大寺 四聖藏本’으로 부르하고자 한다.

(1라)의 龍谷大 所藏本 『華嚴文義要決問答』 卷第1~卷第4는 4卷 2冊의 線裝本으로 原來의 藏書印인 듯한 右側 下段의 藏書印 ‘談峯壽命院藏’(朱文方印)이 찍혀 있고, 龍谷大에서 所藏한 이후에 ‘龍谷學覺大藏書’(白文長方印)이 있다. 또 1面の 中央 下段에는 ‘正德四甲午’(白文長橢圓印)라는 藏書印이 찍혀 있다. 正德 4年은 1714年이므로 이 文獻은

<p style="text-align: right;"> 扶桑畧記曰延曆十六年丁丑寂澄和尚詣大和平城諸耆宿欲謄寫一切經論章疏大安寺開森及東國道忠等助寫二千餘卷及竣其功設万僧齋而供養今安置叡山經藏是也此卷嚴要義問答即其一也落款粗記其意足見前人奉佛謹厚之一斑矣 萬延二年辛酉仲夏 佛眼山竺徹定題 </p> <p style="text-align: left;"> 丙寅初秋寄贈睿山永充山家大師廟所極樂淨土院什物 定又識 </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延曆十六年丁丑八月廿五日書寫近事行福過善父現在父母達法界眾生衆生為行奉 </p>
<p style="text-align: center;">卷上 徹定上人의 筆寫記</p>	<p style="text-align: center;">卷上 墨書 筆寫記</p>

이 해 또는 이 해 以前에 筆寫된 것으로 볼 수 있다.(權仁瀚 2009)

(1마)의 京都大 所藏本 『華嚴經文義要決問答』 卷第1~卷第4는 卍續藏經에 실려 있는 『華嚴經文義要決問答』의 底本으로 京都大 圖書館 藏經書院文庫에 있다. 登錄番號는 ‘藏10/7-9’이며 4卷 1冊의 線裝本이다. 冊 크기는 17.3*24.5cm이며, 墨書로 된 本文 以外에 朱黃色書, 紺青色

書, 軟豆色書, 朱書로 된 句讀點, 校正符號, 페이지符號 등이 있다. 京都大本은 朱黃色, 엷은 紺青色, 赤色 등의 順序로 세 번의 校正을 거친 冊이다. 이 책은 左側 上段에 ‘京都帝國大學圖書之印’(朱文方印)과⁸⁾ 中央 上段에 ‘135504 / 大正 3.25’의 內容을 가진 大正時代 京都大 圖書館의 登錄番號로 보이는 橢圓形의 스템프印이 있으며 中央 下段에는 ‘藏經書院’(朱文方印)의 藏書印이 있다. 金天鶴(1998)의 여러 곳에서 指摘하였듯이 이 文獻은 卍續藏經에 실려 있는 『華嚴經文義要決問答』의 原稿本이며 이 文獻의 底本은 (1라)의 龍谷大本이다.

(1바) 東大寺 松原文庫本 『華嚴文義要決問答』 卷第1, 卷第2는 2卷 1冊의 線裝本으로 東大寺 松原文庫에 所藏되어 있다. 1899年(明治 32年) 卷末에 씌여진 山口共讓스님의 筆寫記에 의하면 스님이 南都 留學 時節에 東大寺 四聖藏本을 보고 書寫하였다는 內容이 있다.(坂東俊彦 2009) 이 文獻의 卷末 筆寫記 옆에는 卍續藏經의 『華嚴經文義要決問答』이 出版된 以後 다시 쓴 筆寫記가 있는데 그 內容을 보면 近年에 續藏이 出版되었는데 全部 4卷이며 對照해서 볼 수 있다는 內容과 明治 40年이라는 年度가 씌어져 있다. 이 記錄으로 卍續藏經의 『華嚴經文義要決問答』이 적어도 1907年 또는 그 以前에 刊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要決問答』의 異本에 대한 書誌 事項을 簡略히 알아보았다. 그런데 異本들을 살펴보면 『要決問答』의 書名이 統一되어 있지 않다는 事實을 注目할 수 있다.(鄭在永 2009) 卍續藏經에 실려 있는 『要決問答』의 書名이 ‘華嚴經文義要決問答’이기 때문에 佛敎學界에서는 『要決問答』의 書名을 ‘華嚴經文義要決問答’으로 通用하고 있는 듯하다. 實際로 『

8) 올해 1월 20일~26일에 이루어진 이 文獻에 대한 精密調査에서 ‘京都帝國大學圖書之印’의 마지막 두 字를 判讀하지 못하여 京都大 特殊資料掛 吉田弘子 先生께 問議하였다. 吉田 先生은 후에 이메일을 보내와 藏書印의 內容을 알려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感謝의 뜻을 표한다.

『要決問答』의 書名은 異本마다 다르고, 같은 冊에서도 卷次 혹은 卷首題/卷尾題마다 달라서 確定 짓기가 困難한 점이 있다. 佐藤本の 경우 ‘華嚴文義要決問答’이며, 延曆寺本の 경우 ‘華嚴經文義要決問答’과 ‘花嚴要義問答’이고, 나머지 後代 寫本에서는 ‘華嚴文義要決問答’과 ‘華嚴經文義要決問答’이 섞여 나오고 있다.

이 文獻의 寫本 가운데 가장 오래된 寫本으로 보이는 佐藤本の 경우 卷首題가 ‘華嚴文義要決問答’이며 延曆寺本の 卷首題인 ‘華嚴經文義要決問答’ 중 ‘經文義要決’은 후에 補寫된 것이어서 原來의 卷首題는 ‘華嚴文義要決問答’일 可能性이 있다. 또한 『要決問答』에 대한 最初의 記錄인 審詳의 藏書目錄에는 ‘表員 華嚴文義要決 一部 一卷’으로, 比較的 初期 目錄인 東大寺 圓超의 『華嚴宗章疏并因明錄』에도 ‘華嚴文義要決 五卷 新羅 表員 述’로 된 점, 그리고 이 文獻의 內容이 華嚴經 自體이기 보다는 華嚴敎學 全般에 걸친 概說書라는 점을 考慮하면 이 文獻의 書名은 ‘華嚴文義要決問答’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3. 卍續藏經과 古寫本

이 節에서는 『要決問答』의 古寫本 즉 佐藤本과 延曆寺本을 中心으로 現在 佛敎學界에서 주로 利用되고 있는 卍續藏經 所在 『華嚴經文義要決問答』(以後로는 卍續藏經만으로 이 文獻을 指稱한다)와의 텍스트 比較를 通해서 古寫本에 依해서 卍續藏經의 텍스트를 校正할 必要가 있고 이러한 作業이 先行된 以後에 敎學的인 研究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이려 한다.

提示된 順序는 먼저 卍續藏經 編輯時 또는 後代 寫本에서 古寫本の

字形을 잘못 把握해서 惹起된 誤謬를 提示하고, 그 다음으로 古寫本에 의해서 卍續藏經을 校正할 수 있는 部分을 提示한다.

3.1. 字形

3.1.1 土

‘土’의 字形 中에는 ‘土’와 같은 古形이 있다. 北魏 元珍墓誌, 隋 元公夫人姬氏墓地, 隋唐 房山雲居寺石經 등(大書源: 554-556) 比較的 이 른 時機에는 ‘土’가 ‘土’字의 字形으로 주로 쓰였다. 古寫本에도 ‘土’의 字形으로는 ‘土’가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래 (7)의 卍續藏經에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7) <卍續藏經 325:a8-13> 若小乘者。色等四塵并能造四大實色為體。若三乘中。初教者。凡小地前。俱以賴耶識為體。地上二義報主亦同賴耶為體。若二智所現。即以唯識智為體。若依終教。但以如來藏真如為體。若一乘以無盡法界通三世間人法理事等諸法為體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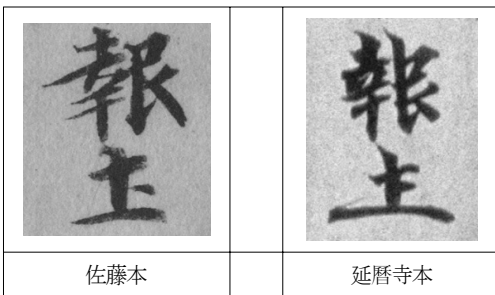
(7)은 『要決問答』 七處九會義의 出體 部分인데 法藏의 『探玄記』를 引用한 部分이다. 그 內容은 ‘小乘은 四塵과 四大 等 實色을 體로 삼고, 三乘 中 初教인 凡夫, 小乘, 初地 以前의 菩薩은 阿賴耶識을 體로 삼고, 初地 以上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報土菩薩은 앞의 경우와 同一하게 阿賴耶識을 體로 삼고 根本智와 後得智가 나타난 二智菩薩은 唯識智를 體로 삼는다’고 說明하는 部分이다. 따라서 文脈上으로 卍續藏經의

9) 提示되는 例文은 CBETA를 利用하여 檢索한 後에 對照가 可能한 文獻은 對照를 거친 것이다. 예를 들면 CBETA의 『華嚴文義要決問答』 卷第1의 경우에는 『卍續藏經』 즉 『大日本續藏經』의 『華嚴經文義要決問答』 卷第1과 對照하였다. 括弧 속의 숫자는 『卍續藏經』 또는 『新修大藏經』의 페이지 番號이다. 또한 引用된 例文이 『華嚴文義要決問答』 卷第1에 收錄되었을 경우에는 便宜上 出典 記錄을 省略하였다.

‘報主’는 ‘報土’의 잘못이다.

‘土’는 그 字形이 ‘主’와 비슷한데(컴퓨터 上으로는 윗부분이 守直劃의 일부로 보이지만 實際로는 ‘丿’과 類似하다) 이에 대한 古寫經들의 字形은 (8)과 아래와 같다.

(8) 報土에 대한 佐藤本과 延曆寺本の 이미지



한편 卍續藏經의 底本으로 보이는 京都大本의 該當 部分에 대한 校正을 살펴보면 興味로운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京都大本의 本文은 원래 墨書로 ‘土’가 씌여 있었는데 朱黃色 校正者는 이 글자의 왼쪽에 ‘土’(弧와 ‘土’의 水平劃은 朱黃色)와 같이 校正하였다가 열은 紺青色의 校正者가 以後에 ‘主(열은 紺青色)’로 校正하였고 最後의 校正者인 赤色の 校正者는 이 誤謬를 미처 發見하지 못하여서 最終적으로 ‘報主’가 되었다.¹⁰⁾

10) 卍續藏經의 原稿本인 京都大本의 校正은 朱黃色, 열은 紺青色, 赤色 順으로 세 段階의 校正이 이루어졌다. 校正은 朱黃色 校正者에 의해 句讀點과 大體의인 校正이 이루어졌고 열은 紺青色 校正者는 卍續藏經의 組版時의 活字 크기 등 印刷에 影響을 미치는 部分 등에 대한 校正이며, 마지막 赤色 校正者는 最終적으로 內容에 대한 校正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部分은 아이러니하게도 朱黃色 校正者에 의해 現代의 字形으로 校正된 글자를 열은 紺青色 校正者가 ‘主’로 잘못 校正하였고 赤色 校正者는 이 部分이 藏書印이 찍힌 部分이어서인지는 몰라도 正確하게 校正하지 못했기 때문에 卍續藏經은 結果적으로 이 部分이 ‘報主’로 校正된 것이다.

前述하였듯이 이 部分은 法藏의 『探玄記』에서 引用한 部分이므로 『探玄記』 原文을 確認하면 그 內容을 正確히 알 수 있다. 아래의 (9)는 이 部分에 대한 『探玄記』의 該當 部分이다.

(9) 《華嚴經探玄記 卷3〈2 盧舍那佛品〉》 若三乘中凡小地前俱以
 賴耶識為體。地上二義。報土亦同賴耶識為體。若二智所現即以
 唯識智為體。(CBETA, T35, no. 1733, p. 158, b2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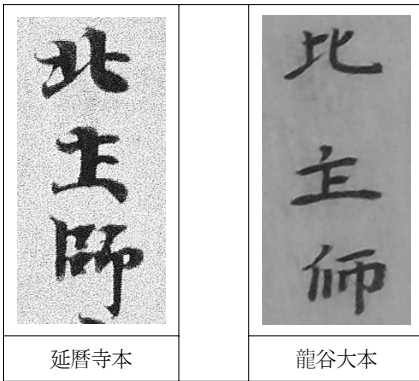
‘土’를 ‘主’로 잘못 把握한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卍續藏經의 336面
 뒷면 下端 11行에는 ‘此主師云’이란 表現이 있고, ‘此’에는 ‘此一作比’라는
 頭註가 달려 있다. 그런데 이 部分은 元曉의 著述을 引用한 部分으로 첫째
 는 南方의 說을 引用하고, 둘째가 問題의 部分이며, 셋째는 三論家를 引用
 한 部分에 該當한다. 問題의 部分은 金天鶴(1998: 182-183)의 指摘대로
 ‘大는 크다는 相이 없으므로 大는 小에 들어갈 수 있고 小는 작다는 相이 없
 으므로 小는 大를 包容할 수 있다(大無大相故 大得入小 小無小相故 小得
 用大)’로 풀이되며, (10)과 같이 吉藏의 『淨名玄論』에 同一한 文章이 있는
 데, 이 文章은 北土地論師가 말한 것으로 明記되어 있다.

(10) 《淨名玄論 卷3》 北土地論師云。大無大相。故大得入少。少無
 少相。故少得容大 (CBETA, T38, no. 1780, p. 870, c3-5)

이 部分에 대한 『要決問答』 異本들의 樣相을 살펴보면 古寫本인 延曆
 寺本은 ‘北土師’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江戸時代의 寫本으로 推定
 되는 東大寺 四聖藏本과 이것을 後代에 옮겨 적은 東大寺 松原文庫本에
 는 ‘北土師’로 되어 있다. 이 部分이 卍續藏經에서 잘못된 理由는 龍谷大
 本에서 비롯된다. 龍谷大本은 어떤 理由인지는 몰라도 ‘比土師’로 되어
 있고 京都大本에서는 筆寫 科程에서는 ‘比土師’(墨書)로 되어 있던 것이

朱黃色 校正을 거쳐 ‘此主師’(‘比’에서 왼쪽 邊의 下段部에 朱黃色으로 붙여 썼음)로 校正되었으며 이것이 卍續藏經에 反映되었다.

(11) ‘北土師’에 대한 異本の 이미지



3.1.2 全

卍續藏經에는 ‘全’의 字形을 잘못 判讀하여 ‘令’으로 잘못 고친 部分이 많다.

(12) 問此但椽等諸緣。何者是舍耶。答椽即是舍。何以故。為椽令獨能作舍。若離椽。舍即令不成故。(卍續藏經 329:b4-7)

이 부분은 ‘이것은 서까래[椽] 등의 諸緣이니 무엇이 집인가?’란 물음에 대해 ‘서까래[椽]가 곧 집[總相]이다. 왜냐하면 서까래[椽]가 全적으로 홀로 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로 對答하는 部分이다. 그런데 卍續藏經에는 ‘為椽全獨能作舍’와 ‘舍即令不成故’가 되어야 할 것을 ‘為椽令獨能作舍’과 ‘舍即令不成故’로 잘못 校正하였다. 이 部分에 대한 諸異本の 記述 樣相을 보면 (13)과 같다.

(13) ‘為椽全獨能作舍’와 ‘舍即全不成故’에 대한 諸異本の 記述 樣相¹¹⁾¹²⁾

- 가. 〈佐藤本 12:07-09〉 何以故為椽全獨能作舍若離椽舍即全不成故若得椽時即得舍耶
- 나. 〈延曆寺本 10:17-18〉 何以故為椽令獨能作舍故、若離椽舍即令不成故、若問椽時即得舍耶、
- 다. 〈四聖藏本 15:20-16:01〉 何以故為椽令獨能作舍若離椽舍即令不成故若得椽時即得舍耶
- 라. 〈龍谷大本 13:20-14:01〉 何以故為椽令獨能作舍若離椽舍即令不成故若得椽時即得舍耶
- 마. 〈京都大本 322:09-10〉 何以故為椽令獨能作舍、若離椽、舍即令不成故、若得椽時、即得舍耶、
- 바. 〈松原文庫本 30:10-31:01〉 何以故為椽令獨能作舍若離椽舍即令不成故若得椽時即得舍耶

(14) ‘為椽全獨能作舍’에 대한 引用 原文

《華嚴一乘教義分齊章 卷4》 問此但椽等諸緣。何者是舍耶。答椽即是舍。何以故。為椽全自¹³⁾獨能作舍故。若離於椽舍即不成。若得椽時

- 11) 이 글에서 諸異本の 例로 提示된 例文은 모두 華嚴文義要決問答 프로젝트팀에서 現在 作業 중인 파일에서 引用한 것이다. 諸異本の 例文 提示는 便宜上 提示된 例文을 包含하는 部分에 대해 張次와 行數가 表示된다.
- 12) 佐藤本은 朱書로 된 點吐와 句切線 등이 記入되어 있는 部分이 있고, 延曆寺本은 朱書로 된 句切線이 記入되어 있는 部分이 있으며, 京都大本은 朱黃色으로 된 句節點이 있다. 이 部分도 實際로는 點吐나 符號가 句切線 등이 記入되어 있으나 論議와 크게 關係가 없는 것이므로 省略하여 表記한다.
- 13) 『華嚴五教章』의 原文에 있는 ‘自’에 대해 甲本, 乙本, 丙本에는 ‘自’가 없다는 註가 달려 있다. 『新修大藏經』所載 『華嚴五教章』은 大本에 淸 康熙 二年(1663) 刊 增上寺 報恩藏本이, 甲本에 報永 三年(1706) 刊 宗教大學藏本이, 乙本에 慶長 十七年(1612) 刊 大谷大學本이, 丙本에 正應 三年(1290) 刊 大谷大學藏本이 使用되었다. 이 部分과 뒤에 나오는 『華嚴

即得舍矣。(p. 507, c21-24)

卍續藏經의 例인 (12)가 ‘令’으로 되어 있는 反面, 古寫本 中에서는 佐藤本이 各各 ‘全’과 ‘令’으로 되어 있고, 古寫本인 延曆寺本은 물론 나머지 異本은 모두 各各 ‘令’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4)에 提示된 引用 原文을 보면 『華嚴五教章』에는 前者는 ‘全’으로 後者는 글자가 없다. 古寫本과 引用 原文의 텍스트가 一致하지 않는 例 中の 하나인데, 佐藤本과 같이 ‘若離椽舍即全不成故’이거나 引用 原文과 같이 ‘若離椽舍即不成故’은 文脈이 통하지만 ‘若離椽舍即令不成故’이어서는 어색하다. 아래의 (15)는 ‘為椽全獨能作舍’ 部分에 대한 佐藤本과 延曆寺本의 이미지이다.

(15) ‘為椽全獨能作舍’에 대한 佐藤本과 延曆寺本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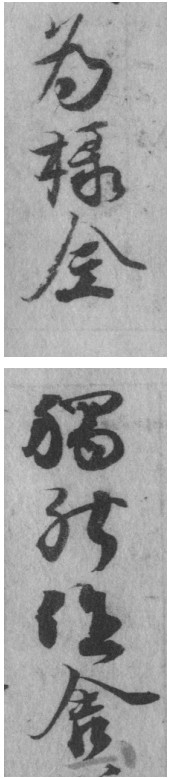

北魏 元思墓誌, 唐 南華真經 등에 쓰인 글자의 ‘全’의 字形(大書源: 249-250)을 보면 마치 ‘令’字의 筆寫體에서 마지막 點이 水平劃에 가까운 字形이다. 佐藤本의 ‘全’은 이 字形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字形은 ‘令’字와 類似하여서 延曆寺本은 물론 後代의 모든 寫本이 ‘令’으로 記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16)은 卍續藏經에서 ‘全’을 ‘令’으로 잘못 記錄한 例들이다.

(16) 가. 若是椽者。其畢令成。若不令作。不名為椽。(CBETA p. 329, b10-11)

나. 答有斷常過。若不令成。但小力者。諸緣各少力。此多箇少不成一令舍。故是斷也 (CBETA p. 329, b12-14)

다. 諸緣並少力。皆無有令執有令舍者無因有。故是常也 (CBETA

五教章』 部分의 記述에서 알 수 있겠지만 新修大藏經의 底本으로 쓰인 淸 康熙 二年 刊 增上寺 報恩藏本의 텍스트는 많은 問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佐藤本	延曆寺本

p. 329, b14-15)

라. 又若不令成者。去却一椽時。舍應猶成在。舍既令不成。故知非小力並令成故。(CBETA p. 329, b15-16)

지금까지 卍續藏經이나 그 原稿本인 京都大本이 古寫本의 字形을 잘못 把握하여 생긴 誤謬에 대해서 ‘玉’와 ‘全’字의 古形을 통해서 살펴보았

다. 이와 비슷한 예로는 ‘互’(‘互’字의 古形)를 ‘瓦’로 또는 ‘为’(‘爲’字의 草書體)를 ‘如’로 잘못 判讀하여 생긴 誤謬 등도 있다. 古寫本에는 古形이나 草書體가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卍續藏經을 編輯할 때에 제대로 反映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誤謬이다.

3.2. 古寫本에 의한 텍스트 校勘

여기서는 卍續藏經의 텍스트 중에서 古寫本에 의해 校正이 必要한 部分을 짚어 본다.

3.2.1 古寫本에 의한 校勘

古寫本에 의한 卍續藏經의 校勘은 些少한 誤謬에서부터 꽤 重要視해야 할 誤謬까지 多樣하게 있다. 이 글에서는 『要決問答』의 進行 順序에 따라 代表的인 誤謬 類型을 提示한다.

- (17) 가. 〈卍續藏經 327:b1-2〉 文云過。去一切劫。安置未來今。未來
 一¹⁴⁾劫迴置過去世。
- 나. 〈佐藤本 06:25-27〉 文云過去一切劫安置未來今未來一切劫
 迴置過去世
- 다. 〈延曆寺本 06:05-06〉 文云過去一切劫安置未來今未來一切
 劫迴置過去世、
- 라. 〈四聖藏本 08:16-18〉 文云過去一切劫安置未來今未來一切
 劫迴置過去世
- 마. 〈龍谷大本 07:15-17〉 文云過去一切劫安置未來今未來一劫

14) 卍續藏經에서 佐藤本과는 달리 ‘一’에는 ‘一下疑脫 切’이라 글자 왼쪽에 관점이 찍혀 있다.

廻置過去世

- 바. 〈京都大本 316:04-05〉 文云、過去一切劫、安置未來今、一劫廻置過去世
- 사. 〈松原文庫本 16:06-08〉 文云過去一切劫安置未來今未來一切劫廻置過去世
- 아. ≪華嚴經旨歸 卷1≫ 是故經云。過去一切劫安置未來。今未來一切劫。廻置過去世。(CBETA, T45, no. 1871, p. 594, c11-13)
- 자. ≪華嚴經探玄記 卷1≫ 是故下云。過去一切劫安。置未來今。未來一切劫廻置過去世。(CBETA, T35, no. 1733, p. 123, c25-28)
- 차. ≪大方廣佛華嚴經(60華嚴) 卷43≫ 過去一切劫 安置未來今未來現在劫 廻置過去世 十方一切刹 皆悉現成壞 (CBETA, T09, no. 278, p. 674, b16-19)

(17)은 離世間品の 마지막 普賢菩薩의 偈頌 中의 一部分으로 ‘過去世, 未來世, 現在世 등 三世가 自在하다’는 內容이다. (17가)의 ‘一劫’은 ‘一切劫’의 잘못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좀더 複雜한 狀況이 얽혀 있다. 『要決問答』의 異本 中에서는 古寫本인 佐藤本과 延曆寺本은 물론 四聖藏本과 그것을 轉寫한 松原文庫本 等은 모두 ‘一切劫’으로 되어 있지만 龍谷大本, 京都大本, 卍續藏經은 ‘一劫’으로 되어 있다. 佐藤本の 例 (17나)는 ‘經文에서 “過去 一切劫을 未來와 現在에 安置하고, 未來 一切劫은 돌려서 過去世에 安置한다”고 하였다’로 解釋되며, 引用 原文으로 보이는 『華嚴經旨歸』나 『華嚴經探玄記』도 ‘一切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卍續藏經의 ‘一劫’은 ‘一切劫’임이 分明하다. 그런데 正작 60華嚴 經文은

(17차)와 같아서 問題의 部分이 ‘一劫’도 아니며, ‘一切劫’도 아니다.¹⁵⁾

『要決問答』의 異本 중 惟獨 龍谷大本, 京都大本, 卍續藏經만 ‘一劫’으로 잘못 되어 있고, 다른 異本은 ‘一切劫’으로 올바르게 筆寫되어 있다는 점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이미 앞의 ‘北土師’의 論議에서 살펴보았듯이 텍스트上的 誤謬를 보이는 卍續藏經의 많은 部分이 龍谷大本에서 비롯된다는 事實은 알 수 있다. 金天鶴(1998)도 龍谷大本에서 잘못 書寫된 部分이 京都大本의 本文에서 고쳐진 경우와 이를 反映한 卍續藏經의 예를 여러 군데에서 指摘하고 龍谷大本, 京都大本, 卍續藏經의 緊密한 關係를 言及하고 있다.

(18) 가. 〈卍續藏經〉亦攝於重重無量念知。如因陀羅網重收攝故。

(CBETA, p. 327, b12-13)

- 나. 〈佐藤本 07:07〉亦攝於重、无量念劫如因陀羅網重收攝故
- 다. 〈延曆寺本 06:15-17〉亦攝於重、无量念劫、如因陀羅網重收攝故、
- 라. 〈四聖藏本 09:07-08〉亦撰於重、无量念知如因陀羅網重收攝故
- 마. 〈龍谷大本 08:05-06〉亦攝於重重无量念知如因陀羅網重收攝故
- 바. 〈京都大本 316:15-16〉亦攝於重重无量、念知如因陀羅網重收攝故、
- 사. 〈松原文庫本 17:07-08〉亦攝於重、无量念知如因陀羅網重

15) 『要決問答』의 引用 原文은 『華嚴經旨歸』나 『華嚴經探玄記』일 것이므로 ‘華嚴經’ 經文의 內容과 關係 없이 卍續藏經의 텍스트를 校勘할 수 있지만 經文의 內容으로 보면 ‘一切劫’보다는 ‘現在劫’이 文脈과 어울리는 것으로 보인다.

收攝故

- 아. <《花嚴經文義綱目》> 三攝於重重無量念劫。如因陀羅網重重收攝故 (卷1 495:c9-10)
- 자. <《華嚴經探玄記》> 三攝於重重無量念劫。如因陀羅網重收攝故 (卷2 127:c18-19)

『卍續藏經』의 例文인 (18가)는 ‘念知’로 되어 있으나 이 部分은 ‘또한 겹겹의 無量한 念[순간]·劫[영원]을 包攝하는 것이, 인드리網이 겹겹이 (비친 映像을) 거두어 包攝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로 解釋되기 때문에 卍續藏經의 ‘念知’는 ‘念劫’으로 校正되어야 한다. 이 部分에 대한 引用 文獻과 諸異本の 樣相을 보면 引用 原文인 『華嚴文義講目』이나 『探玄記』 및 古寫本인 佐藤本과 延曆寺本 등은 ‘念劫’으로 올바르게 되어 있지만 卍續藏經은 물론 後代의 寫本인 四聖藏本, 龍谷大本, 京都大本, 松原文庫本 등은 ‘念知’로 잘못 되어 있다.

- (19) 가. <卍續藏經 328:a1-3> 經云。於一切法。成最正覺。謂普照境界。同一法住。始本冥會。境智一如。名之為佛。
- 나. <佐藤本 08:22-24> 經云於一切法、成最正覺謂普照境界同一法性始本冥會境智一如名之為佛
- 다. <延曆寺本 07:25-26> 經云於一切法成最正覺、謂普照境界、同一法性、始本冥會境故、一切名之為佛、
- 라. <四聖藏本 11:10-11> 經云於一切法成最正覺謂普照境界同一法性始本冥會境智一如名之為佛
- 마. <龍谷大本 10:02-03> 經云於一切法成最正覺謂普照境界同一法住始本冥會境智一如名之為佛
- 바. <京都大本 318:12-13> 經云、於一切法、成最正覺、謂普照

境界、同一法住、始本冥會、境智一如、名之為佛、

사. 〈松原文庫本 21:10-22:01〉 經云於一切法成最正覺謂普照境界同一法性始本冥會境智一如名之為仏

아. 《續華嚴經略疏刊定記》 於一切法。成最正覺故。普照境界。同一法性。始本冥會。境智一如。名之為佛。(卷2 〈世主妙嚴品第一〉 32:a10-12)

(19가)는 ‘經에 이르기를 一切法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룬 것을 普照境界라 이른다. 同一한 法性이 본래부터 그윽히 모여 境과 智가 하나와 같으니 일컬어 佛이라 한다’로 解釋되므로 卍續藏經의 ‘法住’는 ‘法性’으로 校正되어야 한다. (19)에서 볼 수 있듯이 『華嚴刊定記』의 該當 部分도 ‘法性’으로 되어 있다. (19)는 (17)과 같이 佐藤本, 延曆寺本, 四聖藏本, 松原文庫本과는 달리 龍谷大本, 京都大本, 卍續藏經이 잘못되어 있는 類型의 例가 된다.

(20) 가. 〈卍續藏經 328, c10-11〉 又云。佛身充滿諸法界。普賢一切衆生前等。(云云)

나. 〈佐藤本 10:21〉 又云仏身充滿諸法界普現一切衆生前小[云々]

다. 〈延曆寺本 09:07〉 又云佛身、充滿諸法界、普現一切衆生前等[云々、]

라. 《華嚴經探玄記》 佛身充滿諸法界。普現一切衆生前。(卷1 108:b14-15)

마. 《大方廣佛華嚴經》 佛身充滿諸法界，普現一切衆生前 (卷3〈2 盧舍那佛品〉 408:a13)

이 部分은 ‘또 이르기를 “佛身이 모든 法界에 充滿하여 一切 衆生 앞에 두루 나타난다” 등이다.[이와 같은 것들을 말한다.]’로 解釋된다. (20가)의 ‘普賢’은 古寫本과 引用 原文인 『探玄記』와 ‘普現’으로 되어야 한다. 나머지 後代 寫本들은 모두 ‘普賢’으로 되어 있으므로, 古寫本이 맞고 後代 寫本이 잘못된 경우에 該當한다.

- (21) 가. 〈卍續藏經〉 答前別相者。但椽等諸緣。迭互相望。各各異故。
(CBETA, p. 329, d10-12)
- 나. 〈佐藤本 13:21-23〉 答前別相者但椽小諸緣別於一舍故說別相今異相者椽小諸緣迭互相望各、異故
- 다. 〈延曆寺本 11:25-26〉 答前別相者但椽等諸緣別於一舍故、說別相、今異相者椽小諸緣迭互相望各、異故、
- 라. 《華嚴一乘教義分齊章 卷4》 問此與別相有何異耶。答前別相者。但椽等諸緣。別於一舍故說別相。今異相者。椽等諸緣迭互相望。各各異相也。(CBETA, T45, no. 1866, p. 508, b20-23)

卍續藏經의 例인 (21가)는 古寫本과 引用 原文인 『華嚴五教章』에 있는 ‘別於一舍故說別相。今異相者。椽等諸緣’이 통째로 빠져 있다. 이 部分은 後代 寫本에도 모두 빠져 있으므로 古寫本과 引用 原文은 옳고, 나머지 後代 寫本은 잘못된 경우에 該當된다.

- (22) 가. 〈卍續藏經〉 是本數一中具十。何以故。由此二錢自體是一。復與二作一故。即為二一。乃至與十作一故。一切即為十一。
(CBETA, p. 331, d8-10)

- 나. 〈佐藤本 18:01-02〉是本數一中具十何以故由此一錢自體是一復與二作一故即為二 一乃至與十作一故即為十一
- 다. 〈延曆寺本 15:25-27〉是本數一中具十、何以故由此一錢自體、是一復與二作一故、即為二一、乃至與十作一故、即為十一、
- 라. 〈四聖藏本 24:20-25:02〉是本數一中具十何以故由此二錢自體是一復與二作一故一切即為二一
- 마. 〈京都大本 331:10?-12〉是本數一中具十、何以故、由此二錢自體是一、復與二作一故、即為二一、
- 바. 〈松原文庫本 48:10-49:02〉是本數一中具十何以故由此一錢自體是一復與二作一故即為二一乃至與十作一故一切即為十一
- 사. 《華嚴一乘教義分齊章 卷4》是本數。一中即具十。何以故。由此一錢自體是一。復與二作一故。即為二一。乃至與十作一故。即為十一。(CBETA, T45, no. 1866, p. 504, b10-13)

(22가)에 대한 引用 原文과 諸異本の 樣相은 좀 複雜하다. 먼저 引用 原文의 例인 (22사)를 基準으로 놓고 『要決問答』의 다른 異本들을 比較 해 보자. (22사)는 ‘根本數인 一 가운데 十을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이 一 錢 自體가 一이며, 다시 二와 더불어 一이 되기 때문에 곧 二의 一이 되며, 내지 十과 더불어 一이 되기 때문에 곧 十의 一이 되는 것이다’로 解釋 할 수 있다. 古寫本인 佐藤本과 延曆寺本은 引用 原文인 『華嚴五教章』의 文章과 完全히 同一하다.

卍續藏經의 例인 (22가)를 살펴보면 ‘一錢’은 ‘二錢’으로 되어 있고, ‘復與二作一故。即為二一。乃至與十作一故。即為十一’은 ‘復與二作一故。

即為二一。乃至與十作一故。一切即為十一。’로 되어 있어서 剩餘的인 ‘一切’가 더 들어 있다. (22사)의 ‘一錢’은 一 가운데 열 개를 갖추고 있는 事實을 說明하기 때문에 二錢일 수 없다. 또 二와 함께 一이 되기 때문에 二에 緣하는 一이 되고, 三과 함께 一이 되기 때문에 三에 緣하는 一이 되는 식으로 二부터 十까지 같은 內容을 繼續 反復 羅列할 것을 ‘乃至’를 使用해 簡略하게 表現한 部分이기 때문에 마지막 部分은 十과 함께 一이 됨으로 곧 十에 緣하는 一이 되는 것이지 一切가 곧 十에 緣하는 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卍續藏經은 ‘二錢’으로 잘못이며 剩餘的인 ‘一切’가 있는 것도 誤謬이다.

京都大本의 例인 (22마)에는 ‘二錢’으로 잘못 되어 있는 것은 卍續藏經과 同一하지만 原文의 ‘復與二作一故。即為二一。乃至與十作一故。即為十一’ 部分은 ‘復與二作一故’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引用 原文이나 古寫本과는 물론 卍續藏經과도 다르게 筆寫되어 있는 셈이다. 京都大本이 卍續藏經의 原稿本이라고 하더라도 最終적으로 校正할 때는 原稿에 修正되어 있지 않은 事項에 대해서도 校正을 한 예가 있다고 볼 수 있다.

一般的으로 松原文庫本은 四聖藏本을 그대로 베낀 것이며 지금까지 살펴본 예에서도 前者는 後者和 差異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22바)와 (22라)의 比較에서 알 수 있듯이 兩者가 서로 一致하지 않는 部分도 있다. 즉 松原文庫本은 四聖藏本에 비해서 ‘即為二一 乃至與十作一故’를 더 가지고 있다. (22)는 引用 原文과 古寫本이 一致하고 後代의 寫本과 卍續藏經이 誤謬를 가지고 있는 類型에 속하는데, 後代의 寫本들도 서로 다른 樣相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例 가운데 하나이다.

- (23) 가. 〈卍續藏經 330:c9-11〉 義門雖殊。其體不別。色攝為一。是故□成。成猶□也。然雖□別。義門恒異。得為多。若色目之

為壞。壞猶廣也。

- 나. 〈佐藤本 15:17-18〉 義門雖殊其體不別色攝為一是故名成、猶略也、躰雖不別義門恒異得為多色目之為壞、猶廣也
- 다. 〈延曆寺本 13:11-13〉 義門、雖殊其躰、不別色攝有一、是故名成、猶略也、躰雖不別義門、恒異得為多色、目之為壞、廣也、
- 라. 《大乘義章》 義門雖殊。其體不別。體不別故。諸義雖眾。不得相離。不相離故。隨之辨色。得攝為一。是故名成。成猶略也。體雖不別。義門恒異。義門異故。一色隨之。得為多色。目之為壞。壞猶廣也 (卷3 524:a22-26)

(23가)는 卍續藏經에서 ‘□’으로 處理된 部分으로 이런 경우도 역시 古寫本이나 引用 原文을 利用하여 校勘할 수 있다.

- (24) 가. 〈卍續藏經〉 曉云。謂一切世界。入一微塵。一微塵入一切世界。(如一微塵一切亦爾) 三世諸劫。入一剎那。一剎那入三世謂劫。(如一剎那。一切亦爾) 如諸大少促相入。餘一切門相入亦爾。(《華嚴經文義要決問答》 卷2, CBETA, p. 336, b11-14)
- 나. 〈延曆寺本 卷第2 08:09-11〉 曉云謂一切世界入一微塵一微塵入一切世界[如一微塵一切亦爾]三世諸劫入一剎那一剎那入三世諸劫[如一剎那一切亦爾]如諸大少奢促相入餘一切門相入亦爾

지금까지는 古寫本뿐만 아니라 引用 原文도 參照하면 卍續藏經의 텍

스트를 校正할 수 있는 例들을 다루었다. 이 글이 주로 『要決問答』 第1卷을 對象으로 하였고, 卷第1의 경우 大部分의 引用 原文이 現傳하기 때문에 생긴 結果이다. 그러나 『要決問答』에는 (24가)와 같이 引用 原文이 現傳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要決問答』의 경우 懷法師나 元曉의 著述에서 引用하였을 경우 引用 原文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24가)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 이때에는 引用 原文에 기댈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古寫本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24가)에서 ‘三世謂劫’은 ‘三世諸劫’으로 ‘大少促相入’은 ‘大少奢促相入’으로 校正되어야 한다. 後者에 대해서 金天鶴(1998: 176, 주742)은 元曉의 『晉譯華嚴經疏序』에 ‘非大非少非促非奢’로 表現되어 있는 部分과 相通하므로 卍續藏經의 ‘大少促相入’에는 ‘奢’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指摘하고 있다.

이상에서 古寫本이나 引用 文獻을 통해서 卍續藏經을 校正할 수 있는 몇몇 例를 살펴보았다. 『要決問答』 卷第1을 對象으로 古寫本이나 引用 文獻을 통해서 卍續藏經을 校正할 수 있는 部分을 찾아보니 修正해야 하는 部分이 字形을 잘못 判讀하여 생긴 誤謬를 除外하더라도 30여 개에 달하였다. 『要決問答』이 全體 4卷임을 前提로 算術적으로 計算하면 『要決問答』 全體에는 약 120여 개의 誤謬가 있는 셈이 된다. 敎學的 研究를 함에 있어서 卍續藏經의 텍스트 그대로를 利用하기보다는 古寫本이나 引用 原文에 의한 校正 作業이 先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3.2.2 기타의 경우

지금까지 古寫本에 의해서 卍續藏經을 校正할 수 있는 部分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古寫本에도 誤謬는 많다. 아래의 (25)에서 佐藤本은 一部分이 완전히 빠져 있다.

- (25) 가. 〈佐藤本 16:22-23〉 問既言一者何得所言一者非自性一緣成故是故一中有十者是緣成一
- 나. 〈延曆寺本 14:14-15〉 問既言一者何得一中有十耶、答大緣起陀羅尼法、若無一即一切不成故、定知如是此義云何、所言一者非自性一緣成故、是故一中有十者、是緣成一、
- 다. 《華嚴一乘教義分齊章 卷4》 問既言一者。何得一中有十耶。答大緣起陀羅尼法。若無一即一切不成故。定知如是。此義云何。所言一者非自性一。緣成故。是故一中有十者。是緣成一。(CBETA, T45, no. 1866, p. 503, c4-7)
- 라. 〈卍續藏經〉 問既言一者。何得一中有十耶。答大緣起陀羅尼法。若無一即一切不成故。定知如是。此義云何。所言一者。非自性一緣成故。是故。一中有十者。是緣成一。

佐藤本の 텍스트인 (25가)는 굳이 解釋하지 않더라도 빠진 部分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즉 ‘問’으로 시작하는 質問이 完全하게 表現되어 있지 않으며, ‘答’으로 始作하는 答辯도 없기 때문이다.

- (26) 가. 〈延曆寺本 16:09〉 二者亦十門不同、
- 나. 〈佐藤本 18:11-11〉 二者十即一者亦十門不同
- 다. 《華嚴一乘教義分齊章 卷4》 二者十即一者。亦有十門不同。(CBETA, T45, no. 1866, p. 504, b28-29)
- 라. 〈卍續藏經〉 二者十即一者。亦十門。不同 (CBETA, p. 332, a4)

延曆寺本の 텍스트인 (26가)도 佐藤本과 引用 原文을 考慮하면 ‘十即

一者'가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古寫本 自體가 잘못될 可能性도 많으므로 텍스트를 校勘할 때에는 細心한 注意가 必要하다. 引用 原文의 경우에도 '為椽全自獨能作舍故'의 경우와 같이 卍續藏經이나 新修大藏經과 같은 活字本에만 기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引用 原文에 대한 校勘 作業도 必須的이다.

4. 結論

지금까지 『卍續藏經(大日本續藏經)』에 실려 있는 『華嚴經文義要決問答』을 對象으로 敎學的 研究를 할 때, 文獻學的 校監 作業이 반드시 先行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要決問答』 第1卷을 對象으로 『卍續藏經』의 텍스트에서 修正이 必要한 部分이 30여 개 以上이기 때문에 『卍續藏經』을 바로 佛敎學 研究에 利用하는 것은 많은 誤謬를 얹은 채 佛敎學을 研究하는 꼴이 된다.

텍스트의 校監 作業에는 活字化 以前에 筆寫되거나 刊行된 寫本이나 刊本이 使用될 수 있는데, 寫本의 경우에는 글자체가 古形이나 草書體를 使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細心한 主意도 必要하다. 『要決問答』 卷第1의 경우 '土'字의 古形과 '全'字의 古形을 例로 들어 字形에도 注目해야 함을 主張하였다.

引用 文獻을 통해서 텍스트를 校監할 때에도 新修大藏經이나 卍續藏經과 같은 活字本 文獻 以外에 引用 文獻의 寫本이나 刊本을 통한 引用 文獻의 校監 作業이 同時에 이루어질 때 더욱 精密한 敎學的 研究가 可能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高翊晋(1989), 『韓國古代佛教思想史』,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 權仁瀚(2009), 『華嚴文義要決』 및 關聯 資料 調査記, 『口訣研究』 23집, 5-30면.
- 金相鉉(1984), “新羅華嚴學僧의 系譜와 活動”, 『新羅文化』 제1집. 佛敎史學會 編(1988) 『韓國華嚴思想史研究』, 서울: 民族社. 11-73면에 재수록.
- 金星周(2009가),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口訣’, 『口訣研究』 23輯, 67-95면.
- 金星周(2009나), 사토본 『화엄문의요결문답』의 부호, 『한국어문학연구』 53집, 123-148면.
- 김영옥(2003), “佐藤本 華嚴文義要訣의 國語學的 研究”, 『口訣研究』 제10집, 47-78면.
- 金仁得(1982), “表員의 華嚴學”, 佛敎文化研究所 編 『韓國華嚴思想研究』, 서울: 東國大學校 出版部, 107-151면.
- 金天鶴 譯註(1998가), 『화엄경문의요결문답』, 서울: 민족사.
- 金天鶴(1998나), 『화엄경문의요결문답』 해제, 서울: 민족사. 411-457면.
- 김천학(2009), 『화엄경요결문답』에서의 지론사상 수용의 의의, 『口訣研究』 23집, 137-164면.
- 朴商洙(2009), 『華嚴經文義要決問答』에 나오는 元曉의 華嚴學說 -제1권의 引用文 要旨와 翻譯, 『口訣研究』 23집, 165-217면.
- 朴商洙(진행중) ‘華嚴經文義要決問答’ 翻譯, 韓國佛敎全書 翻譯팀, 서울: 東國大 佛敎文化研究所.
- 정병삼 역주(2009) 『정선 화엄II』 한국전통사상총서·불교편, 대한불교조계종 韓國傳統思想書 刊行委員會.

- 鄭在永(2009) 『華嚴文義要決問答』에 대한 文獻學的 研究, 『口訣研究』 23輯, 31-65면.
- 崔鉉植(2009) 8세기 중엽 日本의 新羅 華嚴學 受容과 『華嚴(經)文義要決問答』, 『口訣研究』 23輯, 111-135면.
- 黃圭燦(1998), 『新羅表員의 華嚴學』, 서울: 民族社.
- 堀池春峰(1980) 華嚴經講說よりあみた良弁と審詳, 『南都仏教史の研究 上 東大寺篇』 京都: 法藏社, 386-422면.
- 吉田金彦 外(2001) 『訓點語辭典』, 東京堂出版.
- 木本弘昭(1978) 徹定上人年譜, 『古經堂詩文鈔』 別冊, 75-125면.
- 山田孝雄(1939) ‘華嚴文義要決·東大寺諷誦文 解説’, 『華嚴文義要決』 複製本 解説 論文. 東京: 일성당.
- 小林芳規(2002), “韓國의 角筆點と日本の古訓點との關係”, 『口訣研究』 제8집, 21-49면.
- 小林芳規/尹幸舜 譯(2006), “日本 訓点의 一原流”, 『口訣研究』 제17집 5-41면.
- 小林芳規(2008) 日本語訓点表記としての白点·朱点の始原, 『汲古』 第53号, 1-11면.
- 小林芳規(2010) 日本의 오코토点的 起源과 古代韓國語의 点吐와의 關係, 제39회 口訣學會 全國學術大會 發表 原稿.
- 赤尾榮慶(2010) 養鷗徹定과 古写經, 제39회 口訣學會 全國學術大會 發表 原稿.
- 中田祝夫(1969/1979) 『改正新版 東大寺諷誦文稿의 國語學的研究』, 東京: 風間書房.
- 築島裕(1963/1980) 『平安時代の漢文訓讀語につきての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坂東俊彦(2009) 동대사 소장 동아시아 經卷과 聖敎, 『口訣研究』 23집, 97-109면.

Whitman(2009), 口訣資料と訓点資料の接點-佐藤本「華嚴文義要決」のヲコト点/点吐を中心に, 100回訓點語學會研究發表會 發表要旨.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old scroll of *Hwaeommunuiyogyeolmundab*

Kim Seong Ju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Most of modern Buddhism researchers use the texts in Sinsu Tri-pitaka (新修大藏經 here after, Sinsu) and Man Abhidharma sutras (卍續藏經 here after, Man) to study. The texts in Sinsu and Man, however, could not be complete. In order to study the more whole Buddhism, we should try to make sure of a perfect text in Buddhist data. I think that a way to make sure of the perfect text is the correction through the text of those old scrolls. I insist this point by use of the scroll Hwaeommunuiyogyeolmundap (華嚴文義要決問答) edited by Pyowon (表員) in 8th century.

The variants of this scroll are as follows;

- a. Sato-bon (佐藤本)
- b. Enyakuji-bon (延曆寺本)
- c. Siseizon-bon, Todaiji (東大寺 四聖藏本)
- d. Ryukokudaigaku-bon (龍谷大本)

e. Kyotodaigaku-bon (京都大本)

f. Matsubarabunko-bon, Todaiji (東大寺 松原文庫本)

Among them, Sato-bon (佐藤本) and Enyakuji-bon (延曆寺本) are the old scrolls of this book in Nara and Heian Periods. I corrected the Chinese characters in the texts of Hwaecomkyeongmunuiyogyeolmundab (華嚴經文義要決問答) vol. 1. of Man through those of the old scrolls. The characters which I corrected by this correction as follows;

First, The editor(s) of Man made a mistake of the character 土, the old form of character 土, for the character 主. Therefore, They mistook 報土 for 報主 and 北土師 for 比主師. In the latter case, they mistook 北 for 比 in 北土師, too.

Second, They misidentified 全 for 令 in the text. Therefore they mistook the letter 全 in ‘爲椽令獨能作舍’ (p.329:b4-7), ‘若不令作’ (p.329:b10-11), ‘此多箇少不成一令舍’ (p.329:b12-14), ‘皆無有令執有令舍者無因有’ (p.329:b14-15), ‘舍既令不成。故知非小力並令成故’ (p.329:b15-16) for 令.

I could correct about 30 Chinese characters in vol. 1 of this scroll. Arithmetically calculating, we can find 120 errors through the whole scrolls. Of course, the old scrolls, also, has many errors. But through the correction by use of the old scrolls, we can acquire the more complete text.

Key Words: Hwaecomunuiyogyeolmundap (華嚴文義要決問答), Pyowon (表員), Sato-bon (佐藤本), Enyakuji-bon (延曆寺本), the old scroll, correction

2010년 5월 14일 투고
2010년 6월 7일 심사완료